

2024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 금융교육 세미나 -

개 회 사

2024. 3. 19.(화) 14:00
예금보험공사 19F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당면 과제인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금융교육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을 맞이하여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고생해주신
실무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금융교육의 중요성

이번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의 주제는
“내 돈을 지키고, 내 미래를 확보해가자!”*입니다.

* Protect your money, secure your future!

금융교육의 기본과 본질이 무엇인지
돌이켜 보게끔 하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제작년 시행된 OECD 금융이해력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 금융이해력은
전체 28개국 중 8위로 높은 수준이지만
미래대비나 저축 등 금융태도* 부문은 평균 이하 수준이었으며,
특히, 디지털 금융이해력**은 OECD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조사 참여국 평균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문항내용) ①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지, ②저축보다 소비를 선호하는지

: 우리나라 56점 = 전체(조사 참여 28개국) 평균 56점 < OECD(조사 참여 16개국) 평균 58점

** OECD/INFE 권고로 디지털 금융 이해력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별도 조사

: 우리나라 43점 < 전체(조사 참여 28개국) 평균 53점 < OECD(조사 참여 16개국) 평균 55점

이처럼 우리 금융소비자들은 지식 습득 의지는 강하지만,
신뢰할 만한 정보에의 접근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핀플루언서에 의존하거나
투자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주식 리딩방과 같은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기도 했으며,
주가의 단기 급등락에 베팅하는 근시안적 투자행태는
개인의 손실위험 외에 시장변동성을 확대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지식 욕구와 디지털 활용 능력에 비해,
미래에 대한 준비나 경제적 가치,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은 낮다는 점에서
금융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임을 보여주는 결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미래에 대비해
금융자산을 증식시키고 보호해 나가려면
앞으로의 금융교육은 기초체력을 탄탄히 쌓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 보다 주체적인 소비자로 성장하도록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교육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Ⅲ. 금융교육 추진계획

금융위원회는 '23년부터 국가 금융교육의 방향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으로 정하고
연령과 상황에 맞는 금융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2030 청년층에 집중하여
“청년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금융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❶ 먼저, 청년들이 금융과 친해지고 금융기초를 익힐 수 있도록
보다 친숙한 주제와 채널을 통해 금융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첫 금융거래’ 순간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금융용어를 사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교육이 꼭 필요한 시점(teachable moment)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인스타, 웹툰,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 및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해
금융교육의 경로와 접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❷ 다음으로, 청년들이 스스로의 금융습관을 점검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가 주도하는 금융”을 주제로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투자성향과 속도를 결정함에 있어
주변의 목소리와 권고된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과 속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 금융권의 참여를 통해
맞춤형 재무상담, 지출·소비습관 분석 등
다양한 점검 기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❸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살아남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및 피해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생존 금융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대출, 신용카드, 보험가입,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 등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금융주제들을 선정하여
각자 상황에 맞는 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날이 진화해가는 신·변종 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피해예방 및 대처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IV. 맺음말

우리 청년들과 미래 세대의 경제력은
운명이나 행운, 혹은 베팅(betting)의 영역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하는 “교육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이번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를 시작으로
금융교육 캠페인과 함께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금융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어
금융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발판이 되고,

복잡한 금융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건전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
발제 및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가 우리나라 금융역량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